

<문화소식> 진화랑 슈지 치아키展

[연합뉴스 2009-03-13 08:30]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통의동 진화랑은 일본 작가인 슈지 치아키(36)의 개인전을 17-28일 연다.

작가는 물감의 번짐 효과를 활용한 색채와 자유롭게 뒤엉켜 놓은 선으로 꽃처럼 화려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만든다.

전시는 수채화와 판화 작품 등 30여점으로 꾸며진다.

☎02-738-7570. (사진설명 = 슈지 치아키의 수채화 'strawberry's flower II')

▲삼청동 몽인아트센터는 사진 작가 강홍구(53)의 개인전을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연다.

작가는 2001년부터 작업장 주변인 은평구의 진관내·외동 등을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곳이 뉴타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자 도시화와 개발 과정에서 사라진 것들 혹은 사라질 것들을 기억과 향수를 담아 기록하는 작업으로 진행해왔다고 한다.

전시는 인화된 사진 작품과 함께 400여장의 슬라이드 영상 등으로 꾸며진다.

☎02-736-1446.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토요 문화행사로 14일에는 상설전의 전시작을 한국전통문화연구원 단원들이 무용으로 표현하는 '춤으로 풀어보는 현대미술' 공연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텔런트 최상훈, 박찬숙 전 국회의원, 화가 전명자 등도 나와 시를 낭송한다.

21일에는 영화 '위낭소리' 상영, 28일에는 오케스트라 연주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토요 문화행사는 무료로, 공연 시작 1시간전부터 1층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포한다.

evan@yna.co.kr

[<WBC의 생생 현장! 3210+ 무선인터넷키>](#)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2550873

 인쇄하기

 닫기